



#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6호

## 학장인사말

존경하는 동국법학 가족 여러분!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한희원

신임 법과대학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입니다. 새로운 학교 책임자로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지만 매우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한국 법조사에 커다란 족

적을 남긴 빼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충분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시작한 로스쿨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과대학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인 사법시험(司法試驗)의 폐지가 2017년으로 목전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현행 로스쿨 시스템의 변경이나 사법시험 연장과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내상황으로는 2016년부터 기존의 경찰행정학과가 경찰사법대학으로 확대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물론 법과대학과 경찰사법대학이 상생할 것을 기대하지만 적지 않은 영역에서 중복과 경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적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이에 학장인 저로서는 국내외 법과대학의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법과대학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실천할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국법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언(法彦)처럼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와 사회의 중추로 일할 것이 기대되는 모범적인 민주시민이고 인재로 간주됩니다. 이에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법학, 의학, 종교학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대학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은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대학교육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수

만은 없고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국법학 가족 여러분!

동국법학 가족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그리고 법과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후원군이십니다. 법과대학에는 별다른 후원군이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성원과 관심에는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금번의 위기는 법과대학 설립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한꺼번에 몰아닥친 가장 어려운 위기로 법과대학 혼자만의 힘으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위기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빛나는 동국대학교는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던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존경하는 동국법학 가족 여러분들의 지혜와 도움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과 법무대학원이 변함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과현황 및 동정

### 1.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현황

#### 1-1. 법과대학 법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209명	210명	222명	280명	921명

※ 2016학년도 신입생 : 148명 (남학생 57명, 여학생 91명)

#### 1-2.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64명	60명	124명

#### 1-3. 법무대학원 : 석사과정 64명

#### 1-4. 자산경영법무 최고위과정(일산) : 23명

### 2. 교수 동정

- (1) 법과대학 학장 한희원 교수
- (2) 법과대학 법학과 이용박 박사 강의초빙교수 임용

## 학과소식

### 1. 2016학년도 봄 학위수여식 거행



지난 2월 18일 목요일 법학관 대강의실에서 2016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일반대학원 박사 13명 · 석사 6명 · 법무대학원 석사 12명 · 학사 103명 총 134명이 학위를 받았다. 재학 중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미소(법학과 09)가 이사장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허신걸(법학과 11)이 학부 졸업생 중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 2. 2016학년도 법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진행



지난 2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치악 청소년 수련원에서 법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진행되었다. 신입생 112명, 재학생 약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후배간의 끈끈한 우애를 다지는 친목과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

### 3. 법무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개최



#### 3-1. 법무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지난 3월 17일 목요일 명동 스모가스에서 법무대학원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다. 이번 15기 신입생은 21명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이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 3-2. 일반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지난 3월 18일 금요일 옥돌정에서 일반대학원 신입

생 환영회가 있었다. 박사 9명, 석사 22명이 입학했으며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환대 속에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 4.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

오는 3월 30일 수요일 17:00 법과대학 학장실에서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장학금액은 총 일천만원으로 법학과 3,4학년 재학생 중 5명, 고시반 실원 2명 총 7명이 각각 소득분위 및 고시반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선별됐다. 수여식에는 법학과 동창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5. 2016년 상반기 법과대학 취업프로그램 시행 안내

오는 3월 31일 목요일부터 2016년 상반기 법과대학 주관 취업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대생의 다양한 진로 : 국제기구, 정보기구 등에의 길> 직무특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현직 동문을 초청하여 멘토링이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명	일시	강사
법대생의 다양한 진로 : 국제기구, 정보기구 등에의 길	3.31	한희원 학장
로스쿨 합격기	4.7	문명록 (법 02)
자격증 취득 - 노무사	4.14	정 준 (법 11)
법원행시 및 법원공무원 합격기	4.28	이기동 (법 92) 원혜연 (국어교육 06)
금융감독원 취업가이드	5.12	권오병 (법 96)
사법시험 합격기	5.19	성혜진 (법 10)
미국 로스쿨 진학 및 국제변호사의 길 안내	5.26	김다원

※ 장소는 다향관 세미나실, 시간은 16:30 - 18:30 (단, 4/7(목)의 장소는 법학관 모의법정, 시간은 15:00 - 16:30)